



3년 만에 열린 평창송어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송어낚시. 오대천 빙판에 뚫은 구멍으로 낚시를 하는데, 미끼가 없이 할 수 있다. 초보자도 쉽게 파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다(왼쪽 사진). '천년의 숲길'로 불리는 오대산 월정사의 전나무숲길. 일주문을 지나 사찰 입구 금강교까지 약 1km 구간에 좌우로 아름다리 큰 전나무 숲이 펼쳐진다.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다. 김재범 기자·사진제공 | 지엔씨21



짜릿한 ‘손맛’ 황홀한 ‘눈맛’

“나온다. 지금 나온다”, “엄마, 물고기가 무지 커요.” 참 오랜만에 듣는 감탄사다. 꽁꽁 언 오대천 빙판 작은 구멍에 낚싯대를 드리우고 송어 낚시에 열중하는 얼굴에는 즐거움과 기대가 가득하다. 고산준령과 울창한 숲이 함께 하는 평창은 사계절 여행하기 좋은 고장이지만 그중 겨울은 좀 더 각별하다. 올해 평창의 겨울에는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송어축제와 대관령눈꽃축제가 다시 열리고 있다. 먼저 시작한 송어축제에 이어 20일에는 눈꽃축제가 막을 올린다. 축제장의 떠들썩한 잔치 분위기와 달리 오대산 선재길과 밀브릿지에서선 투명한 적막감이 여행객을 맞는다. 어디 이뿐인가, 발왕산 스카이워크와 대관령삼양목장의 호쾌한 전망은 가슴 속에 절로 호연지기를 일으킨다. 역시 평창은 겨울여행을 할 맛이 난다.

●빙판 송어잡이의 짜릿한 ‘손맛’

평창송어축제는 29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평창은 국내서 송어양식을 처음 시작한 곳이다.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 송어가 힘이 세고 맛이 뛰어나고 자랑한다. 대표 프로그램인 송어낚시는 얼음낚시터와 텐트낚시터에서 즐길 수 있다. 낚시보다 더 짜릿한 손맛을 원하면 ‘송어 맨손잡이’가 있다. 반바지를 입고 차가운 물속에서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다. 낚시 외에 눈썰매, 스노우 래프팅, 얼음카트, 얼음자전거 등의 프로그램도 있다.

대관령눈꽃축제는 20일 개막해 역시 29일까지 진행된다. 해발 700m인 대관령면 송천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슬로건은 ‘대관령이즈백’, 지역민의 생활중심지인

얼음낚시 등 즐길거리 가득한 ‘송어축제’ 한창 각종 레포츠 체험 ‘대관령눈꽃축제’ 20일 개막 오대산 ‘천년의 숲길’ 아름다움에 저절로 힐링 ‘사진 맛집’ 삼양목장·애니포레 알파카 체험 곳

황계 터미널 주변 70~80년대 시가지지를 눈으로 재현한다고 한다. 역시 각종 겨울 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다.

●가슴 탁 트이는 360도 파노라마 풍광

삼양목장은 해발 850~1470m의 고산지대에 있는 동양 최대 목장이다. 1983년4711m²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 언덕 위에는 53기의 풍력발전기가 우뚝 서 있다. 정상 동해전망대에 올라 매서운 겨울 한풍에 버티고 서면 굽이굽이 이어지는 겨울 능선들부터 멀리 강릉 시내와 동해 바다까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용평리조트의 발왕산 스카이워크도 겨울 백두대간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다. 발왕산은 해발 1458m로 국내서 12번째로 높지만, 케이블카가 연결되어 20여분이면 정상까지 간다. 정상 ‘기(氣) 스카이워크’는 높이 24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전망대다. 이곳에서도 병풍처럼 펼쳐진 하얀 산 자락이 시원스레 눈에 가득 들어온다. 역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세찬 바람이 불지만, 겨울 평창의 인증샷을 찍기 좋은 곳이다.

●월정사 천년의 숲길과 선재길

평창 여행길에 꼭 방문하는 오대산에는 유구한 역사

의 고찰과 매력적인 산책로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월정사는 ‘천년의 숲길’로 불리는 전나무숲길이 유명하다. 일주문을 지나 사찰 입구 금강교까지 약 1km 구간에 좌우로 아름다리 큰 전나무 숲이 펼쳐진다.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다.

선재길은 월정사에서 동괴골을 거쳐 상원사까지 약 10km의 구간이다. 월정사 전나무숲길에서 시작해 오대천을 몇 번 좌우로 가로지르며 이어진다. 걷다 보면 동괴골의 멸종위기식물원, 조릿대 숲길 등을 만난다. 대부분이 평지로 무난한 코스지만 겨울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쉽게 녹지도 않는다. 아이젠, 스파이크 등은 필수다. 선재길 끝에는 상원사가 있다. 신라 성덕왕 때인 704년 창건한 절로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선원이다.

밀브릿지는 오대산국립공원 방아다리 약수터 일대에 조성한 자연체험학습장이다. 건축가 성효상이 디자인했다. 철분과 탄산이 풍부한 방아다리 약수는 조선 숙종 때부터 약효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밀브릿지 입구부터 약수체험장까지 약 300m의 길은 전나무와 낙엽송이 어우러진 남다른 운치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곳도…알파카 만나는 애니포레

용평리조트 애니포레에는 국내 최대 독일가문비나무숲이 있다. 잘 관리된 숲길을 거닐어도 좋지만 이곳의 즐거움은 역시 알파카 체험이다. 목장에서 키우는 알파카에게 먹이를 주고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알파카의 모습이 워낙 귀여워 아이들이 무척 좋아한다.

평창 | oldfield@donga.com

가볍고 밤길 밝혀주는 ‘안전 지킴이’ 노스페이스, 신학기 키즈 가방 출시



노스페이스가 새롭게 선보인 ‘키즈 와이드 프리즘 스크랩’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새학기를 앞두고 업그레이드된 기능과 다양한 스타일에 친환경 가치까지 담아 의미있는 설 선물로도 제격인 ‘2023 신학기 키즈 가방’ 신제품을 출시했다.

아이들이 여닫기는 물론 수납물 보관까지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보조가방, 파우치, 지갑 등의 세트 구성을 통해 활용도를 한층 높이면서도 경량성을 유지했다. 가방 각 부분에 야간 반사 원단을 부착하고, 버클 부분에 비상용 호루라기를 부착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더했다. 페트병 리사이클링 소재를 적용하고, 친환경 발수코팅제를 사용해 지구 환경 보호에 관한 교육적 가치도 담았다.

600g대의 가벼운 무게가 눈에 띄는 대표제품 ‘키즈 와이드 프리즘 스크랩’은 다양한 패턴과 컬러로 디자인 요소를 강화해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스타일리시하게 착용 가능한 친환경 가방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하이원리조트, 2회째 추천 웰니스 관광지 선정

하이원리조트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22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하이원 HAO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2회 연속 선정됐다. ‘하이원 HAO 웰니스’는 백두대간 중심에 위치한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이다. 명상과 다식, 요가 등으로 이루어진 HAO 웰니스, 총 연장 40km가 넘는 하이원 하늘길을 체험하는 HAO 트레킹, 아이들을 위한 HAO 키즈 등 3가지 테마로 나누어져 있다. 2022년 ‘하이원 HAO 웰니스’ 이용자는 약 5300여 명으로 2021년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했다. 한편, 하이원리조트는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어 2년간 해외 홍보 마케팅과 여행상품 개발, 외국 관광객 수용여건 개선 등의 지원을 받는다.

제주신화월드, 투숙객에 테마파크 이용권 제공

북한리조트 제주신화월드는 리조트 내 4개 호텔 브랜드 투숙객 전원에게 신화테마파크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기존에 제공하던 테마파크 빅3 이용권에서 업그레이드했다. 신화테마파크는 지난해 70만 명이 방문한 제주도 최대 테마파크로 도내 유일의 롤러코스터인 댄싱 오스카를 비롯해 바이킹과 회전 코스터를 결합한 오스카 스핀 앤 벙크 등의 어트랙션을 갖추고 있다. 1월 한 달간 미션을 수행한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월 13일 (금) 음력: 12월 22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 또한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몸과 마음이 굳어져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주장을 좀 꺾고 상대방과 화해하라.	상대방과 완전히 의견과 방향을 달리하는 운기이다. 이럴 때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대립은 격렬해지고 결과가 나빠진다. 지금의 기운은 쇠하여 있다. 헛된 고집을 버리고 친애와 협조에 마음을 쓸 일이다.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금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아가라.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분쟁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고 만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계망동을 삼가 하라.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혁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거래에서 큰 손수가 들어온다.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 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신중하고 문기를 거듭해야 한다.	한낮의 암흑처럼 절정에 달해 있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쇠퇴의 그늘이 지므로 같은 화려하고 활기가 넘치지만 내부에는 걱정이나 갈등, 비밀 등이 내포되어 있는 때이다. 이런 때는 매사 초지일관의 자세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태연하게 움직이지 않는 산의 운기이다. 심사숙고해서 경계망동을 삼가야 할 때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계획은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다. 선배와 상의하라.	자신의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우며 능력의 한계로 인한 피로감이 쌓이기 쉬운 때이다. 그러나 점차 지금까지의 상태에서 벗어나 활동의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뜻이 관철되는 계기가 조성된다. 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라 재미 본다.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992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영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충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